

데이트 커플의 성적 상호작용

'no'라고 생각하지만 'yes'로 말하는 이유들

유 외 숙

서울여대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특수치료학과

남녀 대학생 1575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과정에서 파트너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행동(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 요구를 받았을 때의 반응에서 성차가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원하지 않으면서도 성적 응낙 경험이 있는 학생 800명(남학생 366명, 여학생 434명)을 대상으로 응낙이유들에서의 개인차와 성차를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원하지 않는 성행동 요구에 대하여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신의 의도에 일치하는 반응을 더 많이 보였으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성적응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낙이유와 애착요소의 상관관계에서 불안수준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의존수준도 응낙동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응낙이유를 분석한 결과, 남녀학생 모두 파트너와의 관계발전을 위한 응낙이 나쁜 결과들을 회피하기 위한 응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파트너와의 성적 상호작용에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응낙하는 행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학생들의 70%이상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애무이상의 성 활동(sexual activity)을 경험한 학생은 48%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향숙, 2001). 이성교제 과정은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고 친밀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성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파트너 사이에서 성적갈등을 경험 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2학년이상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연구(유외숙, 2004)에서 73.0%의 남학생과 53.8%의 여학생이 애무(fondling sex)경험을, 36.3%의 남학생과 25.7%의 여학생이 구강성교(oral sex)를, 63.6%의 남학생과 31.5%의 여학생이 삽입성교(sexual intercourse)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성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성 경험자 중에서 여학생의 74.9%와 남학생의 55.5%가 성문제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학생 4.1%, 여학생 8.5%만이 상담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이성교제를 돕는 개입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 사이의 성적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파트너 사이에서의 안전한 성적협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첫째, 파트너의 성적관심에 대해 주로 여성들이 “싫다”라고 말하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한 것 즉, 성적 흥미를 가진 파트너가 상대방의 “싫다”라는 말을 수용하길 거부하고 성적응낙을 받아내기 위해 심리적인 압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데이트강간이나 부부 강간에 대한 연구들이다(Hogben, 2000; Koss, 1993; Rapaport & Burkhart, 1984). 친밀한 관계 안

에서의 성적 강압행동은 상당히 많은 편이며,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분석에서도 가해자의 6.3%~9.1%가 데이트 상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성폭력 상담소, 2000-2003).

둘째, 성적인 흥미가 없는 파트너가 '싫다'라고 분명히 말하거나, 상대방의 욕구를 나타내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파트너의 요구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설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이며, 이 연구들은 여자들이 남자들의 성적모험에 대하여 어떻게 경계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McCormick, Brannigan, & LaPlante, 1984; Peplau, Rubin, & Hill, 1977). 셋째,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이 성적인 관심이 없거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파트너의 성관계요구에 기꺼이 응낙을 하는 행동 즉, 성적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일부 진행되고 있다(Impett & Peplau, 2002b; O'Sullivan & Allgeier, 1998).

데이트강간, 성희롱 같은 성문제 중심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제한된 대상들을 돕는 자료로 활용되고는 있지만, 건강한 일반 대학생들의 성행동에 대한 이해와 관계증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에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적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적상호작용에서의 성차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남녀 대학생의 성행동에 대한 이해증진과 함께 데이트커플의 건강한 성적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 파트너 사이에서 성욕구나 성적 흥미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불일치에 직면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파트너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욕구 불일치들은 새로운 파트너와의 최초의 성 행동뿐 아니라 데이트를 한지 오래된 관계에서도 성 관계나 혹은 평소에 하지 않던 특별한 성적 활동을 시도할 때 빈번하게 경험하게 된다(Byers & Lewis, 1988; O'Sullivan & Byers, 1996). 데이트관계에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성욕구 결핍 때문만은 아니며, 때로는 성적흥분이나 호기심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새로 시작한 관계에서 아직은 성관계 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보거나, 혹은 자신들의 관계발전에서 관심의 수준을 파트너가 잘못 해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특별한 성관계 제안 그 자체가 싫기 때문일 수가 있다. 이런 성적 불일치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 성관계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성관계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성적의도와 다른 애매모호한 의사소통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no'의 의미이면서 'yes'로 말하는 성적 응낙(compliance)과 'yes'의 의미이면서 'no'라고 말하는 명목상저항(token resistance)이다(Krahe', Scheinberger-Olwig & Koplin, 2000; Shotland & Hunter, 1995). 실제로 성적협상과정에서 남녀 모두 자신의 성적의도와는 다른 모호한 소통방식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성적친밀감의 타협과정에서도 이것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Krahe' et al., 2000).

명목상 저항이나 성적응낙이 잠재적으로 두 사람의 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목상 저항(token resistance)은 정직한 의사소통을 막고, 여성의 거절을 무시하도록 남성을 조장하며, 여성을 작위적으로 보이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Muehlenhard & Hollabaugh, 1988). 그리고 성적상호작용에서의 애매모호한 의사소통은 이성애와 동성애 모두에서 성적으로 공격적 행동화를 조장하며 성적 희생자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도 있다. 나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성적응낙을 한 경우는 결과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즉 파트너와의 성관계에서 자신이 희생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파트너의 요구에 응한 자신에 대한 분노나 부끄러움 등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나 자존감의 손상 같은 정서적인 불편감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이런 부정적인 정서 경험들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원하지 않은 성관계 응낙은 추후의 데이트 관계에서 보다 쉽게 성폭행을 당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Impett & Peplau, 2003).

파트너의 성적 요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응낙하도록 하는 ‘그 무엇’에 대한 연구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상호작용을 탐색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성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구성개념으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쾌락설이 있으며, 쾌락설(hedonism)이란 유쾌한 상황들에는 접근하는 것을 학습하며 고통스런 상황들에는 회피하는 것을 학습한다는 것이다(Petri, 2001). 긍정적이거나 즐거운 경험들을 추구하는 데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접근동기에서 유발되며, 부정적이거나 고통스런 결과들에 대한 회피를 포함한 행동들은 회피동기에서 비롯되었다(Carver & White, 1994).

많은 연구자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응낙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밝히고자 노력해 왔다(변혜정, 2004; 유외숙, 2004; Impett & Peplau, 2002b; Muehlenhard, 1988; O'Sullivan & Allgeier, 1998; Poppen & Segal, 1988; Shotland & Hunter, 1995).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일반적인 이유들 중 가장 공통적인 두 가지는 유혹(enticement)과 이타심(altruism)이었다. 성 경험을 얻고자 하는 욕구, 매력적인 느낌에 대한 욕구, 자기의 또래들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욕구, 파트너로부터의 인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 의미있는 관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고 싶어(50% 이상), 성 경험을 얻기 위하여(51% 대 34%), 또래들을 감동시키려고(25% 대 9%), 인기를 얻으려고(12% 대 6%) 원하지 않는 애무나 성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에,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이타적인 이유들 때문에(62% 대 54%), 그리고 파트너가 관계를 끝낼까봐 두려워서(32% 대 17%)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기에서도 성차가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학생들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능력 있는 남성으로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많았으며 여학생들은 파트너의 안녕이나 관계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유지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은 성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의해 결정이 되며, 이는 학습된 문화적인 영향들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의 두 연구(변혜정, 2004; 유외숙, 2004)에서는 위에 제시된 이유들 이외에도 이미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응낙하고 있었으며, 교제기간이 길수록, 성관계 빈도가 많을수록 원하지 않은 성적응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성관계 빈도가 많을수록 성적응낙이 더 적어진다는 Impett 와 Peplau(2002b)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Bancroft(1997)도 성행동 연구에서는 생리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가능한 남녀를 함께 연구 해 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트너 사이에서 성욕구 차이로 인한 성적 갈등상황에서 상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원하지 않은 성관계응낙이유들이 무엇이며 응낙이유들에서 성차를 보이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연구1. 대학생들의 데이트 과정에서 파트너로부터 원하지 않은 성적 제의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식은 어떠하며 성차를 보이는가?

연구2. 원하지 않으면서도 응낙하게 되는 이유들에 있어서 성별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지역 7개교, 경기지역 2개교, 충청지역의 2개교, 경북지역의 2개교, 경남지역의 2개교, 전남북지역의 2개교, 강원지역의 2개교 등 총 19개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이상의 학생 1575명을 대상으로 하여 원하지 않은 성적 제의를 파트너로부터 받았을 때의 대처 방식에 대한 자기보고식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중 과거와 현재의 데이트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파트너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즉, 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요구를 적어도 한번이상 응낙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 한 남녀 대학생 800명(남학생 366명, 여학생 434명)의 자료를 재분석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만18세~30세 사이로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23.9세, 여학생의 평균연령은 21.4세였다. 학년별 구성은 2학년 40.3%, 3학년 22.0%, 4학년 37.7%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남학생의 83.1%가 군복무를 필한 학생이었다.

연구도구

1)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반응 척도(Responses to Unwanted Sex Scale)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에 대한 반응 질문지는 O'Sullivan과 Byers(1996)가 제작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우리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심리학 교수 2인의 문항 내용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문항은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 성행위(애무, 구강성교, 또는 삽입성교)를 요구 하였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경험 있는 분들은 대처 하였던 방식들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대처 할 방식들에 표를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다. 대처방식으로는 'no 라고 분명히 말하기', '상대방의 신호를 무시하기',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설득하기', '그냥 성관계에 응하기'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언제나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2)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척도(Consensual Unwanted Sex Scale)

성적 응낙의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지는 Impett와 Peplau(2002b)가 제작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연구자가 제작하여 임상심리학과 발달심리학 교수 2인의 문항 내용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문항은 '현재 사귀고 있는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과의 성적인 접촉을 원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혹은 피로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파트너의 성적 요구에 별로 응하고 싶지 않았을 경우에 파트너의 요구(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가 있을 때마다 당신은 어느 정도 응했는지를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단 현재 사귀고 있는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는 과거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

는 내용이었다. 참여자들은 그들이 세 종류의 성행동 즉 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에서 각각의 성 접촉 요구에 응낙하는 정도를 ‘전혀 응하지 않았다’에서 ‘언제나 응했다’까지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한번 이상 성관계 응낙을 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4점에서 최고 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남자 .81 여자 .69, 전체 .79 였다.

3) 성관계 응낙 동기 질문지(Reasons for Sexual Compliance Questionnaire)

성관계 응낙을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은 대학생들이 최근 또는 과거의 데이트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를 응낙하게 된 이유들을 상기시키도록 하는 질문들이다. 이 문항들은 본인이 성관계를 원하지는 않지만 응낙하는 이유들을 밝히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Impett와 Peplau(2002b)의 12문항을 본 연구자가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발달심리 전공 교수의 감수를 받아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내용은 ‘나는 관계에서 더욱 더 친밀해 지기를 원했다’ ‘나는 내 파트너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를 원했다’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동기와 ‘만약 내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트너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다’와 ‘만약 내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트너가 우리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협박할까봐 걱정이 되었다’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동기들이 포함되어 구성되었다. 문항내용은 “내가 원하지 않는 성행위(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를 현재파트너나 과거의 파트너가 요구하였을 때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응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이 응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중요했습니까?”이다. 응낙동기의 중요성의 정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에서 ‘아주 중요했다’까지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4) 성인애착 척도(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

애착 관계의 질에 대한 평가는 Collins와 Read (1990)에 의해 개발된 성인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은 요인 분석에 의해 의존, 불안, 접근의 세 하위 척도로 나누어졌으며 이 하위 척도는 애착과 다른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할 때, 어느 애착요소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Collins와 Read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의존 .71, 불안 .52, 접근 .68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척도에서 내적 합치도를 낮추는 문항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다’, ‘나는 상대방과 하나로 융합되고 싶다’,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려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을 제거한 총 15문항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남녀 각각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의존이 .67과 .61 이었으며, 불안이 .72과 .74 이었고 접근이 .61과 .62 였다.

결과 및 해석

데이트 파트너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대처반응양식의 성차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대처반응양식에서 남녀의 성차에 따른 결과는 표1과 같다. 표 1에서 제시된 바, 파트너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를 받을 때 대처 반응의 하위 전 영역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성차가 있었다. 그리고 데이트 파트너 사이에서의 성적 의사결정에서 여학생은 남학생 보다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트너 사이의 성적 불일치 시 성적응낙 보다는 no라고 분명히 말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은 분명하게 no라고 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여학생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방의 신호를 무시하기 보다는 성적응낙을 더 하는 경향을 보였다.

1.

	(N=912)	(N=663)	F
	M(SD)	M(SD)	
No	3.64(1.08)	2.64(1.11)	319.40***
	2.89(1.10)	2.00(1.00)	271.49***
가	3.29(1.24)	2.67(1.10)	106.03***
	1.45(0.76))	2.37(1.20)	343.84***

*** $p < .001$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트너의 성관계 요구에 응낙하는 이유의 반응빈도(%)

성별에 따른 응낙동기의 반응은 표 2에 제시 되었다. 표2에 따르면 남녀 학생 모두 ‘파트너의 욕구를 만족 시키려고’, ‘더욱 친밀해 지고 싶어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호기심이 있어서’, ‘파트너가 거부당했다고 느끼길 원하지 않아서’, ‘응낙 하는 것이 거절하는 것 보다 쉬워서’ 등의 순서로 반응을 보였으며 ‘응낙하지 않으면 관계를 끝낼까 봐’ 의 문항만 여학생(8.47%)이 남학생(6.45%)보다 더 중요하다고 반응하였으며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 남학생들의 반응빈도가 더 높았다. 또한 남녀모두 접근동기(친밀해지고 싶어서, 파트너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어서 등)들이 회피동기(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질까 봐, 관계를 끝내겠다고 할까 봐)보다 반응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호기심과 성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반응이 남학생(47.81%, 33.33%)이 여학생(36.64%, 20.74%)보다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여학생도 꽤 많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응낙동기문항과 애착의 하위요소의 상관관계

애착의 하위 요소인 불안, 의존, 접근가능성과 응낙동기 문항과의 상관은 표3과 표4에 제시되었다. 표3과 표4에 제시 된 바, 남녀 모두 불안특성은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질까봐’, ‘관계를 끝내겠다고 협박 할까봐’, ‘관계 안에서의 긴장을 피하려고’ 등의 문항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불안특성이 남학생은 ‘성적 경험을 얻고 싶어서’, ‘호기심에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에 비하여 여학생은 ‘파트너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와 의미있는 상관을 보여 성별에 따른 유사성과 차이점이 나타났다.

표2.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응낙하게 된 중요한 동기의 반응빈도

	성별	
	여학생 (N=434)	남학생 (N=366)
더욱 친밀해지고 싶어서	204(47.00)	209(57.10)
파트너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어서	220(50.69)	252(68.85)
관계의 긴장을 피하고 싶어서.	149(34.33)	170(46.45)
성적 경험을 얻고 싶어서	90(20.74)	122(33.33)
호기심이 있어서	159(36.64)	175(47.81)
관계를 끝내겠다고 할까봐	28(6.45)	31(8.47)
파트너가 처음 성관계를 시도할 때 거부당했다고 느끼길 원치 않아서	127(29.26)	158(43.17)
이미 성관계를 가져서 의무감 때문에	83(19.12)	127(34.70)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질까봐	57(13.13)	38(10.38)
응낙하는 것이 거절하는 것 보다 쉬워서	111(25.58)	115(31.42)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191(44.00)	199(54.37)

3.

N=366

		M	SD			
1.	.	4.73	1.38	.01	-.05	.01
2.	.	5.07	1.23	.01	-.01	.03
3.	.	4.33	1.46	.13**	-.19***	-.04
4.	.	3.87	1.52	.22***	-.15**	-.18***
5.	.	4.26	1.55	.23***	-.10*	-.06
6.	가	3.82	1.66	.13**	-.15**	-.05
7.	가 가	2.40	1.43	.28***	-.21***	-.11*
8.	가 가	2.58	1.51	.30***	-.23***	-.15**
9.	가 가	3.98	1.74	.16**	-.20***	-.09

* $p < .05$, ** $p < .01$, *** $p < .001$

			M	SD			
1.	.		4.29	1.46	.08	.02	.01
2.	.		4.34	1.43	.13**	-.04	-.12**
3.	.		3.85	1.46	.17***	-.08	-.06
4.			2.91	1.60	.09	-.11	.01
5.	.		3.89	1.56	.06	-.04	-.06
6.		가	2.86	1.72	.12**	-.08	-.02
7.	가	가	1.86	1.34	.33***	-.15	-.03
8.	가	가	2.32	1.63	.35***	-.16***	-.06
9.	가	가	3.32	1.74	.21***	-.08	-.09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중요한 타인에 대한 가용성 정도를 나타내는 의존요소는 남녀 공통으로 ‘파트너가 더 이상관심을 안 가질까봐 염려하는’ 문항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는 불안 관련 문항과 거의 같은 문항들이 유의한 상관은 나타냈다. 타인과의 접근가능성을 나타내는 접근요소는 여학생은 ‘파트너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서’와 남학생은 ‘성적 경험을 얻고 싶어서’,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까 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2학년 이상의 대학생 1575명(여 912명 남 663명)을 대상으로 데이트과정에서의 성적인 불일치상황에서의 상호작용 방식과 원하지 않은 성관계 제의에 응낙하는 이유들을 밝히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문제에 따라 결과를 요약해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 파트너와의 성적 불일치 상황 즉 원하지 않은 성관계(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 요구를 제의 받았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는 대처 반응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원하지 않을 때 no라고 분명히 말하거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설득하는 방식을 자주 선택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신호를 무시하는 방식도 어느정도 사용하고 있으나 성적응낙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남학생들은 no라고 분명히 말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반응은 어느정도 조금

은 사용하지만 성적 응낙도 어느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트너의 성적제의를 거절하기 보다는 성관계로 접어드는 경향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23.9 세로 남학생의 생리적인 측면인 성적욕구나 호기심이 가장 높은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파트너의 성적 제안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성적응낙의 이유들에서 남녀의 45%~70% 정도가 파트너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어서, 더욱 친밀해지고 싶어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응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남학생들은 30%~48%정도가 성적 호기심과 성경험을 얻고 싶어서라고 하였으며 여학생들도 20%~36%정도가 성적 호기심과 성경험을 얻고 싶어서 원하지는 않지만 응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 모두 반응비율은 앞의 이유들보다는 낮지만 파트너의 관심이 멀어지거나 관계를 끝낼까봐, 의무감으로, 거절하는 것이 응낙하는 것보다 쉬워서라는 이유들을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차이와 연구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Impett & Peplau, 2002b; O'Sullivan & Allgeier, 1998)들과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여학생의 1/4과 남학생의 1/3정도가 거절하는 것보다 응낙하는 것이 쉬워서 응낙을 한 적이 있다고 한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계지속을 위한 파트너와의 성적상호작용방식이 본인의 의도와 다른 방식을 선택 할 때는 그 이후에 자존감의 손상, 부끄러움, 분노 같은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동반 할 수가 있으며 이는 결국 관계지속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데이트 중에 원하지 않은 성적 응낙을 경험한 학생들이 남학생 55.2%, 여학생 47.6%로서 데이트 과정에서 반 정도는 원하지 않은 성적 제의를 받고 응낙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응낙 이유를 통하여 본 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접근동기가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한 회피 동기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응답비율에서 회피동기가 적다고는 하지만 관계 안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인지하고 파트너의 의도와는 다르게 과도하게 자신을 통제하거나 억제하게 되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응낙하게 된다면 데이트 강간 같은 성폭행으로 갈 가능성과 콘돔협상 같은 안전한 성으로의 협상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셋째, 애착의 하위 요소인 불안, 접근, 의존과 응낙이유와의 관계에서 남녀 모두 불안특성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 불안특성은 타인과 매우 가까워지길 원하지만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과 연관이 있다. 파트너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 파트너가 떠날까봐 염려를 한다면, 이런 두려움은 파트너에게 정서적, 행동적으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할 수 있다. 불안수준이 성적 응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관계의 주도성 같은 성관계 권력에 영향을 주거나 응낙 동기에 영향을 주어 성적 응낙 행동으로 이어진다(유외숙, 2004). 한편으로 불안과 관련된 응낙 동기문항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점으로는 남학생은 호기심이나 성 경험을 얻고자 하는 자기 본위의 동기와 관련된 반면에 여학생은 파트너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타적인 동기와 관련이 있었다. 이는 남학생은 불안수준이 높을 때 자신의 만족을 통해 직접적으로 위로를 얻으며, 여학생은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안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타인의 가용성 정도를 나타내는 의존수준 낮을 때 여학생은 남녀 모두 파트너가 관심을 더 이상 안 갖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으며 남학생들

은 파트너의 대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 불안수준이 높을 때와 같은 동기들이 중요했다. 그리고 타인과의 접근 가능성이 적을 때에도 여학생은 파트너의 욕구충족을 위해, 남학생은 성경험을 얻으려고, 파트너의 관심을 유지하려고 응낙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보다 더 이타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친밀한 관계안에서 성적응낙을 하고 있으리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성교제 과정에서의 성적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대상 표집이 제한되어 있고 현재와 과거 경험자를 같이 포함시킨 점이 있긴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성적 상호 작용들이 관계의 만족과 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향숙 (2001). **대학생의 애착, 사랑유형에 따른 성행동**.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변혜정 (2004). **성폭력 피해 구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외숙 (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대학생 중심으로-**. 서울여대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성폭력 상담소, **소식지 나눔터** 33호 (2000)~46호(2003)
- Bancroft, J. (1997). *Researching sexual behavior: Methodological Issues*. (Ed.) Indianapolis: The University of Indiana Press.
- Byers, E. S., & Lewis, K. (1988). Dating couples' disagreements over the desired level of sexual intimacy. *Journal of Sex Research*, 24, 15-29.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19-333.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Hogben, H. (2000). Patterns of Conflict Resolution Within Relationships and Coercive Sexual Behavior of Men and Women.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43(5/6), 341-357.
- Impett, E. A., & Peplau, L. A. (2002b). Why some women consent to unwanted sex with a dating partner: Insights from attachment theo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 359-369.
- Impett, E. A. & Peplau, L. A.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The Journal of Sex Research*, 40(1), 87-100.
- Koss, M. P. (1993). Detecting the scope of rape: A review of prevalence research metho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8, 198-222.

- Krahe', B., Scheinberger-Olwig, R., & Koplín, S. (2000). Ambiguous communication of sexual intentions as a risk marker of sexual aggression. *Sex Roles*, 42, 313-337.
- McCormick, N. B., Brannigan, G. G., & LaPlante, M. N. (1984). Social desirability in the bedroom: Role of approval motivation in sexual relationships. *Sex Roles*, 11, 303-314.
- Muehlenhard, C. L. (1988). "Nice women" don't say yes and "real men" don't say no: How miscommunication and the double standard can cause sexual problems. *Women & Therapy*, 7, 95-108.
- O'Sullivan, L. F., & Allgeier, E. R. (1998). Feigning sexual desire: Consenting to unwanted sexual activity in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Research*, 35, 234-243.
- O'Sullivan, L. F., & Byers, E. S. (1996). Gender differences in responses to discrepancies in desired level of sexual intimacy.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8, 49-67.
- Peplau, L. A., Rubin, Z., & Hill, C. T. (1977). Sexual intimacy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Issues*, 33(2), 86-109.
- Petri, H. L. (2001). 동기-이론. 연구. 그리고 활용.(박소현, 김문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96에 출판)
- Poppen, P. J., & Segal, N. J. (1988). The influence of sex and sex role orientation on sexual coercion. *Sex Roles*, 11/12, 689-701.
- Rapaport, K., & Burkhart, B. (1984). Personality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sexually coercive college ma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216-221.
- Shotland, R. L., & Hunter, B. A. (1995). Women's token resistant and compliant sexual behaviors are related to uncertain sexual intentions and rap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26-236.

Sexual Interactions Between Dating Couple

-Saying "yes", but thinking "no"-

YOO Oe Sook

The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Therapeutic Techn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gender difference in his or her reaction to the partner's unwanted sexual behaviors (fondling sex, oral sex, sexual intercourse), examining a sample of 1,575 college men and women. And, 800 students (366 men, 434 women), who had engaged in compliant sexual behavior, were examined for studying individual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ir consent reasons, on the basis of attachment theory. Results showed that more women than men acted up to their intention of refusing unwanted sexual behavior, and more men than women engaged in sexual compliance. Anxiety affected sexual compliance more than the other factors of attachment did, and dependence also affected the reason of men's consent to unwanted sexual behaviors. More men and women engaged in compliant sexual behaviors for developing better relationship than avoiding the worse relationship with their partners. The compliance in the interactions between dating partners were discussed.